"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22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음력 2월 24일)

4·3 희생자·유족증 발급 '하세월'

유족증 신청서 발급까지 두 달 소요 신청자 '불만'
행정 전담인력 1명 고작… 업무 부담 개선도 시급
공항 주차료 생색내기 지적도… 도 "국토부와 협의"

최근 제주4·3 희생자·유족증 발급이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신청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제주4·3 희생자·유족증 신청·발급을 처리하는 행정의 전담 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은 희생자 1만4660명(생존 116명), 유족 8만8533여명 등이다.

발급 첫해인 2019년 1만1500여건에 이어 2020년 8300건, 2021년 4037건 등 올해 3월 기준 총 3만1484건을 발급했다.

특히 희생자·유족증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를 위한 자체 시책 발굴로 항공료 감면 혜택 확대와 도내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이 시행되면서 최근에도 일주일 평균 200여 건씩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청 이후 발급까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소요되면서 신청자들이 언제 발급이 이뤄질지 모르는 희생자·유족증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다.

더욱이 4·3희생자·유족증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제주도청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접수에서부터 발급까지의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있는 등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원활한 4·3 희생자·유족증 발급을 위해 올해 관련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주차료 감면과 관련해 복잡한 신청 절차에 비해 사실상 공항주차료 감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유족의 할인율은 20%에 그치면서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유족증 관련 업무를 담당직원 한사람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올해 업체에 위탁해 발급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항 주차료 할인과 관련해서는)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제주도는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조형섭 (주)제주반도체 대표이사, 김창희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국회 및 도의회, 공공기관, 기업,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강희만기자

'4·3특별법 일부개정령' 공포 본격 시행

4·3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

제주4·3 여파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정해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령이 14일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기존 4·3특별법 시행령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면 실무위원회는 사실 조사 뒤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실제 자녀임에도,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무지침 마련,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오는 7월부터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전… 2면 /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확진… 5면

움츠렸던 외국인 관광시장 기지개 켜나

이달 3년여 만에 제주항·강정항에 국제크루즈 입항
중국·홍콩 하늘길 재개에 업계 인력 충원 등 재정비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에 맞춰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달 제주에 크루즈 뱃길이 코로나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고 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에 이어 중국, 홍콩 등 제주와 해외를 잇는 하늘길이 더 넓어질 예정이어서 도내 관련 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손님맞이 채비에 나서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독일 국적 2만9000t급 크루즈선인 아마데아호가 오는 16일 오전 8시쯤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한다. 이 크루즈선은 승객 500여명과 승무원 300여명 등 800여명을 태우고 일본 니가타에서 출발해 지난 13일 속초항에 입항했으며 이후 부산을 경유한 뒤 제주에 도착해 9시간 정도 머물 예정이다. 제주항에 국제 크루즈가 입항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영국 국적 11만5000t급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오는 19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 크루즈선은 승객 1500여명과 승무원 1100여명 등 2600여명을 태우고 일본 가고시마에서 출발해 제주에 입항한 후 9시간가량 머물 계획이다. 승객들은 기항관광상품을 통해 여미지식물원,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성읍민속촌, 성산일출봉 등 도내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강정 크루즈항에 관광객을 태운 국제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2018년 5월 강정 크루즈항이 완공된 이후 2019년 3월 영국 국적의 크루즈선 '퀸메리 2호(14만8000t)'에 이어 같은 해 5월 대만 국적의 크루즈선 '마제스틱 프린세스호(14만2000t)'가 두 차례 기항한 이후로는 운항이 끊겼다.

제주와 해외를 잇는 하늘길도 더 넓어진다.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이달 중국 시안·상하이와 홍콩 직항 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또한 중국 저비용항공사인 춘추항공도 제주~상하이 노선을 이달 26일부터 복항해 주 7회 운항할 계획이다. 홍콩 익스프레스도 제주~홍콩 직항 노선을 복항해 이달 30일부터 주 2회 운항한다.

중국 직항 노선이 재개되면서 면세업계와 호텔 등 관광업계는 인력 충원 등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재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도내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외 마케팅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중국·홍콩 직항 노선 재개에 발맞춰 딜러를 포함해 카지노 인력을 약 400명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